

문화 간 갈등해소를 위한 탈인습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김진영(강서성결교회/목사)

kjy0691@yonsei.ac.kr

한글 초록

세계화로 대변되는 현대사회는 이동성, 혼종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지구적 현상을 보인다. 최근 보고된 유엔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제이주, 즉 자신이 태어난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수가 2억 5천 8백만 명이 넘는다. 이 수치는 자신의 문화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상황 속으로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이질적 문화와의 만남 속에 인간은 다양하고 풍성한 삶의 양식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높은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반면 문화적 차이 내지는 간격에 대한 물이해, 배타 및 배제, 혐오, 자민족 우월주의 등에 의한 갈등이나 심각한 물리적 충돌에 노출되기도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들이 중첩됨에 따른 갈등상황을 안고 있는 현대사회는 더 이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의한 자민족 내지는 자국 중심의 정체성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인과 이주민 모두가 지구적 시민으로서 연합된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은 더욱 확대 및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을 전제로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교육모형으로써 기독교인에게 갈등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킬 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 축으로는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인간발달 과정에서의 탈인습성을,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신학적 접근을 통한 살림의 공동체성을 상호 간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고, 본 연구의 목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모형을 위한 실천적 수렴가치를 도출해 볼 것이다.

본 논문의 충실한 이해를 위한 선행적 해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화적 다양성 및 타자가 전유하고 있는 문화적 내용에 대한 열린 마음과 존중의 태도는

* 본 논문은 2020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온라인 콜로키움(5.8)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차이와 이질성의 장애를 극복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본 연구는 ‘지구’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실체들의 공존과 공영을 위한 발의(initiative)라는 점이다. 셋째는 본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실천적 교육모형을 일관적으로 견인해 가도록 하는 실천적 수렴 가치인 평화는 심리학과 신학의 간학문적 방법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교육 맥락 속에 제시된 본 연구의 교육모형은 기독교적 교육환경을 우선 염두에 둔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먼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파악한다. 그런 후, 갈등해소를 위한 상호보완적 시도로서 발달심리학적 차원인 성숙한 성인에게서 발견되는 탈인습성과 탈인습성의 한계인 개인적 차원을 보완하기 위해 성서에서 발견되는 ‘살롬’(shalom)이 함의하는 공동체성을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탈인습성과 살롬의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실천적 가치인 평화를 실현해 내는 교육모형을 제안할 것이다.

《 주제어 》

세계화, 이동성, 혼종성, 문화적 다양성, 갈등, 탈인습성, 살롬, 공동체성, 평화, 기독교교육, 문화적 순환모형

I.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가 보여주는 현상으로서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그에 따른 갈등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실제이면서 동시에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 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입에 따른 이주민과 국내인 간 갈등은 문화적 다양성과 그에 따른 갈등의 실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까지를 기준으로 국내 체류외국인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20여 개국으로부터 2,367,607명에 이른다(통계청, 2018). 이러한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국내인과의 갈등은 미시적으로는 국내인에 의한 이주민에 대한 무지, 팔대(褻待), 경계, 차별, 혐오 그리고 이주민에 의한 국내인에 대한 열등감, 두려움, 피해의식 등에 의한 계토화, 상호 간 갈등 및 물리적 충돌 같은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고,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오는 정체성 위기, 다양한 경험과 가치 속에서 요청되는 수렴 기준의 혼란,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문명으로부터 뒤쳐질 수 있다는 불안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거시적으로는 타문화와의 접변과정에서 독립된 환경에 있던 하나의 개별문화가 자신과 다른 이질문화를 경험할 때, 즉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자의 이질적 요소에 대한 일방적, 억압적, 그리고 타협 없는 자문화 고수(固守), 그리고 그에 의한 갈등과 충돌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본 연구의 성과로서 제시되는 평화를 위한 기독교적 교육모형을 학습함으로써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게 하여 직면하는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해 내며, 나아가 기독교인에게 요청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함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적 관점과 환경을 염두에 두며, 기독교 교육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는 실천적 교육모형 제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논리적 전개를 위해 신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심리학 자원으로 부터 발견할 수 있는 통찰의 경청과 수용, 그리고 신학과 심리학 양자 간의 상호보완적 내용을 아우르는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로서 먼저, 평화를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 김성은(2005)은 세계화 및 패권에 의한 갈등해소를 위해 현실상황에 대한 해석과 삶의 실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안한 반면, 오현선(2009)은 다른 인종과 문화 간 발생 가능한 차별과 억압 해소를 위해 평화와 정의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변영인(2010)은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사회적 및 심리적 갈등 해소를 위해 인간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적 상담 기술을 제안하고, 손문(2010)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간 및 세대 간 갈등, 그리고 남녀평등과 같은 긴장 해소를 기독교 대학의 교육적 모델을 제안한다. 종교와 관련하여 이은선(2011)은 한국 내 기독교와 불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의한 정교분리 정책의 일관적 수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독교와 관련하여 조용훈(2011)은 기독교가 형성적 가치인 공생 및 상생, 관용, 배려와 돌봄, 환대를 기반으로 종교의 다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교회의 책임과 관련하여 임성빈(2013)은 인권을 기반으로 자기 존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사장적 돌봄, 그리고 갈등 유발의 요인인 사

회구조적 취약에 대한 예언자적 선포가 교회의 책임이라 보았다. 강문규(2016)는 종교, 남북갈등, 소득분배에 의한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토대에 '화해'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보았고, 옥장흠(2019)은 기독교교육의 방향이 종교적 신념 및 교리에 의한 신앙교육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량을 통한 삶의 변화로의 전환을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윤석(2009)은 다문화 및 세계화되어 가는 시대에서 요청되는 기독교적 책임은 타자에 대한 경청과 소통, 그리고 연대를 통한 사회적 형성과 변형의 역할 수행으로 보았다. 김현숙(2006)은 현대사회를 개인주의화, 사회적 분화, 문화적 및 종교적 다원주의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사회에 요청되는 개인의 특징은 관계성, 평등성, 개방성이며, 특히 기독교인은 더 나아가 타자와의 진정한 대화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소양까지도 요청받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신승범(2014)은 다문화적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독교적 노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며, 대부분의 연구가 그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의 제시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실제적 실천을 제안할 것이다.

II. 성년기 탈인습성 : 발달심리학적 이해

성년기에서 발견되거나 혹은 요청되는 탈인습성은 물리적인 연령에 비례하여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로버트 키건(1982, 5)에 의하면 성인은 모든 발달이 멈추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마지막 상태(end state)가 아니라, 상당한 진화적 확장이 가능한 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숙은 대다수의 성인은 탈인습적 인지, 정서, 행동의 특성을 대부분 획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습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이해하면서 성인에 대한 학습가능성을 암시한다(김현숙, 2004, 139). 그러므로 성인들의 인습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의 기

회는 현대사회에 부합하면서,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해 낼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탈인습성의 개념

탈인습성(postconventionality)은 인습(convention)이라는 개념을 전제한다. 브렌다 먼시(Brenda Munsey)가 편집해 출판한 Moral Development, Moral Education, and Kohlberg에서 콜버그는 개인이 전유(專有)하고 있는 도덕적 수준은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도덕적 선택의 근거에 따라 전인습적 수준, 인습적 수준, 그리고 탈인습적 수준으로 규정하였다(Munsey, 1980, 91-92). 그리고 탈인습적 수준에서의 도덕적 판단은 전인습적 단계에서 영향을 주었던 외부적인 억압, 자신만의 욕구 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인습적 수준에서의 외부적인 권위인 사회적 권위나 기대, 가치와 규범 등과의 수동적 동일화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의 정당성이나 적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무엇이 도덕적 가치와 원리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51). 이 단계에서 보이는 도덕적 특징으로서 콜버그는 인습적 단계보다 ‘더 높은’(higher), ‘더 발달된’(more developed), ‘더 분화되고 통합된’(more differentiated and integrated), ‘더 균형 잡힌’(more equilibrated) 수준으로 설명한다(Kohlberg, 51). 그러므로 문화적 역동에 의한 갈등에 노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요청되는 탈인습성은 과거로부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행해져 온 일반적, 습관적 및 전통적 형식과 내용, 그리고 구태의연(舊態依然)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태도나 인식으로서 개방적 사회 속에서 그에게 기대하는 주도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 인습적 배타성 내지는 폐쇄성에 대한 반성, 다양한 전통에 기반을 둔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수용력,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살며, 또한 함께 잘 살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2. 성년기 탈인습성 특징

인간의 발달을 여러 차원 및 수준에서 살펴볼 때 성년기에서 발견되는 탈인습적 특징들이 있다. 콜버그의 도덕발달단계에서는 절차적인 합의에 따른 규칙을 선호하며, 정의로 대변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 즉 인간의 존엄성, 평등성 등과 같은 가치에 대해 개방적이며 그에 상응한다(Munsey, 1980, 81; Kegan, 1983, 53). 그리고 길리건(1982, 73)은 자아와 타자 사이에서의 상호적 관계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다. 신앙의 차원에서 파울리에 의한 탈인습적 성향은 개인적 및 성찰적 신앙 수준으로 주체적 자아, 비판의식, 기존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 그리고 통합적 및 결합적 신앙 수준으로 이분법적 논리의 극복과 대화적인 압과 다면적인 개방성이(Fowler, 1981, 174-211), 키건(101-106)에 의하면 자아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한 경청과 타자의 수용, 그리고 형식적인 규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태도를 지닌다. 벨랭키 외 세 명의 여성 학자인 클린치, 골드버거, 그리고 타룰에 의하면 이원론적 관점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양쪽의 관점 모두를 통합할 수 있으며, 기존 권위에 대해서도 구성적인 수정에 대해 개방적이며, 외부의 권위나 주어진 환경을 초월한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경청할 수 있다(Belenky & Clinchy & Goldberger & Tarule, 1986, 87-102). 같은 맥락에서 로빙거(2011, 4-5)에 의해 제시된 인간성 발달단계에 있어서 탈인습적 단계에 있는 성인은 주체성 인식에 따른 탈순응적인 태도와 상황에 따른 수용과 적용에 대한 유동적인 자세, 그리고 다수의 관점에 관심을 갖는다. 하버마스(1997, 219)에게서는 사회적인 타당성에 기반한 담화를 통해 합의된 정당한 규범을 지향하는 태도 및 담화를 통한 타당성에 의한 권위와 정의를 재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셸먼(1980, 39-40)에 의한 사회적 관점취득단계에서는 자아, 타자, 그리고 제3자에 의한 다중적 관계성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가치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김현숙(2004, 239)은 성년기에 나타나는 탈인습적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탈인습성의 이론을 개방성, 평등성, 관계성으로 세계화 및 문화적 다양성 사회와 관련하여 이해해 볼 때, 개방성은 변화되는 상황과 이질적 문화적 매개에 대한 열린 태도로, 평등성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직면하는 상대를 인종, 사용하는 언어, 성별, 사회적 계층, 조직의 지위, 연령, 건강, 성향 등에 상관없이 존엄한 인격으로서 같은 가치

와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과 실천으로, 관계성은 그 어떤 사회적 매개도 사회성을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를 기반으로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회적 매개는 연결되어 있고, 상호보완을 통해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유기성으로 볼 수 있다.

3. 갈등에 관한 탈인습성 이론의 함의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속에서 탈인습성으로서의 개방성은 첫째로 인습적 '자기중심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인습으로서의 자기중심성은 자신이 전유하고 있는 민족, 인종, 국가, 체제, 전통 등에 대한 수구적, 폐쇄적 태도라 할 수 있다. 도덕발달이론에 있어서 탈인습성이 우선 도덕적으로 관련한다는 이해를 가졌던 제임스 웨스트 외 3인(2014, 42)은 개인이 탈인습적인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자신이 중심이 된 직관, 개별적 내지는 특정 민족 중심적 선호, 특정한 권력이나 계층에 의한 독점이나 폐쇄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로 탈인습성으로서의 개방성은 문화적 다양성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해소를 위한 상호 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격려한다. 이를 테면, 이주민이 정주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나타날 때, 그 갈등이 무엇에 기인하는지, 국내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간 주장과 요구에 대한 경청, 화해와 조정, 그리고 합의를 통해 이주민이 원활하게 정주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셋째로 탈인습성으로서의 개방성은 '자기변용'(self acculturation)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기 스스로를 세상 및 다양한 매개 속으로 개방하면서 그에 상응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자기개방에 의한 사회적 성찰은 곧, 자기경계라는 인습으로부터 타자를 위한 삶이라는 탈인습적 삶의 모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탈인습성으로서의 개방성에 의한 이와 같은 폐쇄성과 배타성에 의한 인간소외를 초래하는 자기중심성에 대한 반성, 갈등해소를 위한 당사자 목소리의 경청, 그리고 자기성찰을 통한 소외된 타자를 위한 삶의 변용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화적 다양성에 의한 갈등해소를 위

해 요청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탈인습성으로서의 평등성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속에서 갖는 함의의 첫째는 사회적 매개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자격에 대한 균등하고 획일적인 평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은 자신이 전유한 문화적 내용과 특징에 의해 정체성을 형성하며, 그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다시 집단적 동질성으로서 타자와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형성한 문화적 내용과 특징에 의한 동질성은 문화 간 만남 속에서는 이질성으로 기능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는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의 평등성 논의는 동등한 대화 상대방으로서의 타자 인식이다. 여기서 대화는 상호 간 동등한 지위와 자격이 주어진 토론상황에서의 자기주장 내지는 비판을 의미한다. 콜버그에 의한 첫 번째 탈인습적 도덕 수준인 사회적 계약 및 법적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도덕적 가치로서 인권, 평등, 인간존엄과 같은 비상대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 외에 인간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 질서와 법역시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라는 절대가치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합의적 절차에 의해 구성된 가치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평등의 논의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평등의 문제를 가시적인 외형적, 물리적 차원으로만 접근할 때, 편견과 선입견의 내면화 내지는 왜곡된 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평등의 문제는 단순한 인종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의 역동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인종과 같은 가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무형적 내용이 함께 관련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문화 간 갈등에 대한 탈인습성으로서의 관계성의 함의로서 첫째는 상호보완성에 대한 인식이다. 현대사회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 단위로 하여금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보완성에 의한 관계로서 직면한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 이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이주민에 의한 한국사회의 기여 정도를 볼 때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식과 태도, 그리고 정책에 대한 모색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로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의 갈등에 대한 탈인습성으로서의 관계성은 상호보완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관계성에 있어서 특정한 권위에 의한 종속성의 비판적 성찰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이주민이 정주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주문화는 정주사회 중심의 유익과 효과만을 염두에 둔 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주민에게 국내인에 상응하는 동등한 지위와 자격의 부여함으로써 정주사회에 종속되기보다 사회적 주체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탈인습성은 의사소통적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교환이 아닌,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자신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규범까지도 비평할 수 있는 담화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인이든 이주민이든 양자 간 접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탈종속적인 관계에 의한 담화는 문화적 다양성과 그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기술이 될 수 있다.

캐나다, 호주, 미국 등과 같은 다문화 선진국은 일찍부터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개방적 태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따른 시민의식과 평등의식, 그리고 지구적 과제에 대한 유기적 관계의 고려 등으로써 긍정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탈인습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단기간 내의 효과나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보다 그에 상응하는 결과만을 기대한 채, 모방 및 미흡한 수준에서의 무리한 일방적 정책은 일시적인 반응과 효과를 줄 수 있으나, 기존 정착인의 기저에 있는 의식인 정주문화는 우월하고, 이주문화는 열등하다는 종속적 선입견이나 그에 따른 이주문화에 대한 정주문화의 억압과 같은 인습성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Ⅲ. 살림의 공동체성 : 신학적 이해

현대사회의 문화 간 접변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주체, 규모, 대상,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성숙한 수준에 있는 성인에게서 요구되는 탈인습성, 곧 구조적, 연속적 인간의 성장 및 발달을 기반으로 한 성인의 의식과 실천뿐만 아니라, 집단, 사회, 인종,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탈인습성 역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 샬롬의 개념

샬롬(shalom)은 구약성서에서 237회에 걸쳐 나오며, 의미적 범위는 기본적인 인간 삶과 관련이 있다(Stendebach, 2006, XV, 15). 그에 대한 예로써 첫째, 우가릿어에서는 ‘손상되지 않음, 평화, 화목제, 희생, 지불된’ 등의 의미로, 둘째, 아카드어에서는 ‘우호적인, 평화로운, 화해하다. 온전한, 지불하다, 온전히 갚다, 만족하다.’ 등의 의미로, 셋째, 고대 아람어에서는 피엘(piel) 동사로서는 ‘온전하다, 손상이 없다.’로, 파엘(pael) 동사로서는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다, 지불하다, 보상하다.’로, 하펠(haphel) 동사로서는 ‘갚다, 행복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넷째, 시리아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휘 속에서 발견되는데, 일반적인 의미는 ‘완전함, 조화, 공동체성, 충만함’ 등의 의미였다. 그리고 다섯째, 에티오피아에서는 ‘건강함, 합의, 평화, 안전, 공동체성, 화해하다, 회복하다.’ 등의 의미로 파생되었다. 한편, 히브리어에서 피엘형 동사인 ‘돌려주다, 진정시키다, 벌금을 지불하다, 갚다, 보상하다’로부터 파생된 명사로서 ‘평화’(peace), ‘평안’(well-being), 그리고 ‘균형과 만족’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특히 게를만(Gerleman)은 사람에게 있어 상황이나, 그 어떤 것이 충분하거나 충족되는 상태로 이해했다. 같은 맥락에서 베스트만(Westermann)은 샬롬의 의미와 용례에 있어서 ‘완전함, 통전성, 손상 없음’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회적 집단과 관련시키면서 전쟁에 반대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샬롬은 이와 같이 본래 구체적 삶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면서 가정이나 마을과 같은 사회적 소집단의 행복(welfare)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알버츠(Albertz)는 이러한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종말론적 선물로서의 확장된 평화의 개념과 관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샬롬이 피엘 동사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견해에 반대한 아이젠바이스(Eizenweiss)는 샬롬은 처음부터 명사로서 오직 ‘통전성’(wholeness)을 의미했으며, 그 자체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 왔다고 보았다. 아이젠바이스와 같은 입장에서 페더슨(Pederson)은 샬롬은 단지 사회적 조화, 자유, 그리고 구애받지 않는 성장, 영혼의 충분한 표현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폰 라드에게 있어 샬롬의 의미는 신체적인 면에서의 ‘행복’으로서 신체적 건강, 풍요, 만족을 의미했다(Stendebach, 2006, 15-19).

살롬이 집단적인 것과 연관될 때에는 대략적으로 ‘평화’에 가깝다. 물론 살롬의 상당한 용례에 있어서 ‘평화’의 의미보다는 ‘관계’(relationship)로서 더 많이 쓰인다. 그런 의미에서는 살롬은 명백하게 사회적인 개념인데, 즉 ‘두 집단 사이의 요구나 주장의 균형, 조화로운 상태 그리고 공동체 관계, 그리고 손상되지 않음, 통전성’을 의미한다. 아이젠바이스와 게를만과는 달리, 폰 라드는 단순한 하나의 개념에 초점만을 맞추지 않는다(Stendebach, 2006, 18). 살롬은 단순히 하나의 영단어에 의한 표현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다양하고 풍성한 함의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고대 근동 사람이 기대했던 개인, 가정, 그리고 마을과 같은 집단을 위한 평안, 풍요 같은 복의 내용으로서 모든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타자 내지는 타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위협받지 않는 상태, 안전, 평화까지 그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2. 살롬의 공동체적 특성

살롬의 공동체성은 내적인 유기적 특성으로서 상호의존성, 정의, 그리고 통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상호의존성이다. 인간의 삶은 다양한 관계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에 의한 다양한 관계형성은 인간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회성을 제공하고, 인간은 그 사회성을 기반으로 살아간다. 살롬의 사전적 사례 속에서 살롬은 물리적 연결로서의 관계, 유기적 연결 속에서의 관계성 일종인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그리고 더 강화되고 확장된 관계성으로서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을 발견할 수 있다. 상호보완성이 대체로 타자와의 양극성 내지는 타자에 대한 배타성에 기반을 둔 반면, 상호의존성은 타자에 대한 의존성(dependency)에 기반을 둔다는 면에서 상호보완성과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에 기반 한 살롬은 평화, 정의, 창조물을 위한 돌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배려(respect) 등이 하나님, 이웃, 그리고 회복된 창조물의 사랑에 기초해 있는 완전한 세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Nessan, 2010, 10). 둘째, 정의이다. 이것은 정의에 의해 개념적 살롬이 실제적 살롬으로 규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에 의해 진정한 살롬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곧, 사회적 실재 간의 모든 관계성 및 상호의존

성, 그리고 통전성이 정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월터스토프(2004, 23)에 의하면 이 관계는 바로고 정의로워야 한다. 월터스토프가 파악한 올바른 관계는 모든 개체에 대한 존재론적 존중과 그 역할에 대한 순기능적 기대가 보장되는 관계이다. 전체(wholeness) 속에서 하나의 개체라도 소외되거나, 억압받게 된다면 그 개체와 관계를 이루는 또 다른 개체 역시 유기적 관계 속에서 그에 대한 부정적 영향내지는 악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전체에 파괴적, 그리고 위협적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살롬은 모든 개체에 의한 존재, 역할, 상호의존, 그리고 상생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보호와 독려가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셋째, 통전성이다. 살롬은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정의를 내적원리로 삼을 때, 살롬의 방식은 통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통전성은 하나의 개체라도 소외되거나 예외로 취급받지 않으며, 개체의 특성과 기능은 전체 속에서 확인되는 성질이다. 랜디 우들리(2012, 80)의 살롬 개념 속에는 통전성을 내포한다. 곧,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외에 동물, 새, 그리고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환경이 되는 지구에 대한 관심 또한 각 개체가 훌륭하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선호되는 방식이며, 이러한 통전성은 가족적인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3. 평화에 의한 탈인습성과 살롬의 실천

살롬이 가진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살롬은 일반적으로 성서에서는 영어 평화(peace)로 번역된다(Yank, 1987, 81; Nesson, 10). 살롬이 평화라는 말로 환원할 수 있을 때, 살롬의 특성인 상호의존성, 정의, 통전성은 평화를 구성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평화를 실현하게 하는 매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평화는 모든 사회적 매개인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국가 간 상호작용 속에서 요청되는 최종적 이상인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해 내기 위해 요청되는 실천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평화가 전제될 때,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구상하는 모든 사회적 매개 간의 공존과 공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살롬의 구체적, 실제적, 실천적 함의인 평화는 문화 간 갈등해소

를 위한 교육적 통찰까지 모색하도록 돕는다. 그렇다면 평화의 실천적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는 관계 외연의 확장이다. 우들리(2012, 15-16)는 살롬이 사회적인 관계적 개념으로서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무력한 자, 그리고 주린 자가 어떻게 취급받는지에 의해 증명되며, 사회의 주변에 의해 검증된다고 보았다. 이는 결코 독립된 개인이나 부분으로서의 살롬은 있을 수 없으며, 잘 먹는 공동체 속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 한 살롬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21). 이는 집단적 동질성을 부여하는 문화적 내용인 인종, 언어, 민족, 계층, 성(性), 이념, 종교 등에 의한 우월적 집단의식으로부터 벗어나 누구와 평화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가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며, 나아가 관계를 이루는 외연확장에 대한 실천적 제안이다. 둘째는 수행을 위한 원리로서의 정의이다. 이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전유한 당사자인 국내인과 이주민 간 관계 속에 상호 간 정당한 대우가 보장되고 있는가,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원인 규명에 있어서 인습적 편견이나 선입견이 극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내 이주민의 삶은 국내인과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에 의한 관계라 할 수 있는 바른 관계와는 큰 간격을 보이고 있다. 요더(1987, 26)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정의를 행함으로써(through doing justice) 세상(universe)을 다스리신다. 그 정의는 약한 자와 억눌린 자를 유익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강한 자를 대항하게 하시는 것이다(29). 셋째는 환대를 위한 개방적 수용이다. 월터스토프(2004, 142)에 의하면 살롬에 의한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관계 안에서 기쁨(delight)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쁨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 자신의 동료들(fellows)과 그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서 얻는 기쁨, 그리고 그들 자신으로부터의 기쁨을 의미한다(142).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살롬의 모습을 축하하고, 살롬의 부재(shortfall)을 애통해 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다(23). 이러한 타자에 대한 축하와 기쁨은 관계하는 상대를 향한 열린 마음과 태도로서의 환대에 의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한준성과 최진우(2018, 8-9)에 의하면 이러한 환대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첫째, 유입해온 이주민의 고국뿐만 아니라, 정주사회의 발전가능성이 위축

될 수 있으며, 둘째, 자기문화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환대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매개의 삶을 끈고하게 할 수 있다. 관계적 외연의 확장, 수행을 위한 원리로서의 정의, 그리고 환대를 위한 개방적 수용에 의한 탈인습성과 살림의 공동체성 실천으로서의 평화는 결국 갈등에 직면해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평화를 구축해 가야 하는 미래의 당사자에 대한 교육적 요청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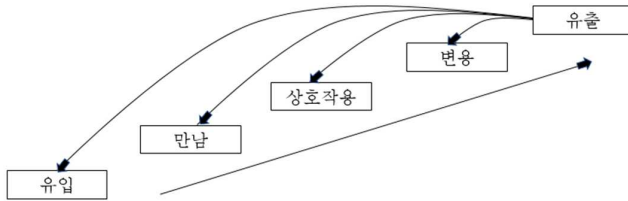
IV. 평화를 위한 탈인습적 기독교 교육모형 : 기독교교육적 이해

본 장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탈인습적 기독교 교육모형은 세계화와 그에 따른 역기능적 갈등과 충돌이라는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앞서 간학문적으로 탐색한 탈인습성과 살림의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평화를 지향한다. 평화를 위한 탈인습적 기독교교육의 최종적 목적은 성년기에 있는 기독교인인 학습자에게 본 장에서 제시하는 교육모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의 갈등을 해소해 낼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고, 그에 대한 결과로써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회적 매개와의 평화적 공존과 공영 실현 및 기독교인에게 요청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격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탈인습적 기독교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문화 간 갈등에 직면해 있는 학습자로 하여금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게 할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문화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심리학적 및 기독교적 자원을 토대로 접근할 것인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어떠한 가치와 의식 및 수행을 기대할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수-학습과정 등의 구성요소를 구상하고, 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일련의 과정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 형식적 준거인 '문화적 순환모형'(cultural circulation model)이 제시된다. 문화적 순환모형은 문화적 다양성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련의 절차적 현상에 대한 이해면서 동시에 직면한 과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면에 있어서

교육적 실천 기재이기도 하다. 문화적 순환모델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각 단계 및 그 역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유입’(inflow)이다. 유입은 다양한 의미를 포괄한다. 거시적으로는 하나의 문화에 다른 문화가 흘러들어 오는 것, 미시적으로는 개인에게 낯선 문화적 내용이 접근해 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는 ‘만남’(encounter)이다. 만남은 문화적 개체 및 유입되는 문화적 내용이 이미 국내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국내인 및 주류문화의 내용과 접촉하는 현상을 말한다. 셋째는 ‘상호작용’(interaction)이다. 상호작용은 유입과 만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간 주고받는 역동, 즉 갈등, 충돌, 흡수, 절충, 융합 등이 생성되는 행위다. 문화 간 상호작용을 다르게 표현하여 문화차용, 문화교류, 문화강요로 설명할 수 있는데, 환언하면 문화는 이질적 문화 간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결과에 이르는데, 한편으로는 문화차용, 문화교류와 같은 발전적 변화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강요와 같은 부정적 변화를 겪는다는 의미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34). 넷째는 ‘변용’(acculturation)이다. 변용은 앞선 단계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이질적 문화 간 상호작용에 참여한 문화적 매개가 자신의 과거에 전유하던 전통, 습관, 생활방식, 인습적 인식 등에 대해 의식적, 실천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는 ‘유출’(outflow)이다. 유출은 또 다른 문화와의 만남으로 연결되는 사건이다. 이질적 문화의 유입과 만남, 그리고 상호작용에 따라 변용된 개인 및 문화적 내용은 독립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머물러 있기 보다는 끊임없는 관계와 연결을 지향한다. 즉, 그 전 단계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학습자는 멈추어있지 않으며 지속적인 사회화 과정을 겪는다. 환언하여 또 다른 환경으로 자신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의미이다. 문화적 순환모델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계적 절차 역시 순차적 및 순환적 과정 속에서 모든 다른 단계에 적극적으로 관계하는데, 문화적 순환모델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문화적 순환모델

성인은 현대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상당한 갈등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책임적 위치에 있다. 그리고 가정의 해체 및 회사와 일반 집단의 파편화와 개인주의화는 ‘교회’라는 대안적 공동체를 지향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환경에서 청년기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표 1> 갈등해소를 위한 교안

		갈등해소를 위한 교안	
교 육 내 용	1	갈등 이해	① 개념, 이론, 실태 (국내외 포괄) ② 실제적 갈등 이해: - 불균형 갈등 case (문화, 종교, 이주), - 균형 갈등 case (이념: 권위)
	2	해결방 법의 실제	① 타자되기 - put yourself in other's shoes, 易地思之 - 거리두기에 의한 경청과 대화 ② 기독교적 관점 확인하기 - 하나님 나라 대사(大使) - 하나님의 뜻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출 19장) - 예수의 식탁(누구나 환영, 마 9장) -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수용의 예, 행 10장) ③ 갈등해소 워크숍 - 그리기 활동과 나눔 활동 ④ 성찰과 회개 - 대화(조정, 수용) ⑤ 집단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살림’ - 관계외연 확장, 환대와 수용, 수행 원리로서의 정의
	3	실천 과제	① 일상으로서의 순환모델 이해하기 (유입, 만남, 상호작용, 변용, 유출) ② 순환모델을 기반으로 직면한 갈등 해결하기

4	되먹임 (feedback)	- 갈등해결 사례 나누기
참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교육방법은 실제 개인이 직면해 있는 갈등상황이 대체로 문화, 종교, 이주에 의한 사회적 강자와 약자 간, 그리고 이념에 의한 비교적 대등한 지위와 입장에서의 이념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한다. 단, 경제적 이권과 관련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쟁은 갈등상황이기보다 사업(business)적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로 한다. - 불균형 갈등은 갈등 당사자 간 지위나 권위가 간격을 나타내고 있는 갈등이며, 반면 균형 갈등은 대등한 지위나 권위에 의한 간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돌하고 있는 갈등이다. - 갈등해소 워크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기 활동과 나눔 활동은 국내외 평화를 주제로 창작된 그림을 보여주고 그 감상을 나누는 활동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초록개구리 출판사의 2009년 '평화를 배우는 교실' 시리즈, 보리출판사의 2010년 '평화발자국' 시리즈, 나미북스의 2010년 9월 출간된 'Peace Story' 등이 있다(현은자 외, 2013, 225). 그 외 '갈등', '갈등과 화해' 등과 같은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림을 개인별, 모임별 그려보도록 하고 그 그림에 대한 감상을 서로 나눔으로써 갈등해소의 필요성을 체득하도록 한다. 	

탈인습적 기독교교육 교수-학습과정은 첫째, 학습자를 충분히 고려한 교수-학습과정이어야 한다. 벅크스(2013, 75)에 의하면 교사가 인종, 사회 계층, 성별, 장애 등에 대해 학습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면 교육현장에 일어나는 교육과정과 교육결과에 있어서 지나친 단순화, 부정확한 이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거나 단순하게 인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이 전유한 문화적 내용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을 배제하고, 다양한 나라로부터 참여하고 있는 이주민 학습자에 대한 국내인 중심적인 동일성 내지는 획일성에 의한 기회 균등적 평등을 반성하며, 그리고 동화주의에 기반을 둔 교사 중심의 일 방향적인 인습적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다양한 참여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과정을 모색하고 개발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화중심의 교수-학습과정이어야 한다. 교수-학습과정에서 대화중심이라는 학습자가 중심이 된 교수-학습과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전통적인 교수-학습과정에서는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교육내용이 전해지고, 학습자는 교사에 의해 전달되는 교육내용을 수동적으로 듣는, 즉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수-학습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학습자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교육은 그 특성상 교육내용의 일방적 전수를 위한 인습적 교수-학습과정을 여전히 선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독교적 교육내용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습자에 의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질문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리고 해석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 대한 학습자의 질문, 그에 상응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의 응답, 교사의 응답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 및 성찰, 실천적 가치를 위한 수렴적 절차 속에서 수행되는 교사와 학습자 및 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대화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그 과정 자체가 교육내용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기반의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 및 학습자 간 대화중심의 교수-학습과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격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민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짐 커민스(2000, 2-3)에 의하면 언어적 기술은 사회적으로 배우는 것, 즉 기본 대인 대화 기술(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BICS)과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 즉 학문적 언어 유창성(Cognitive Academy Language, Proficiency, CALP)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낯선 이국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주민에게 있어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학문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과정의 고려라 할 수 있다. 이주민을 고려한 탈인습적 기독교교육에서의 교수-학습과정은 교회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참여하는 이주민 및 현재는 참여하지 않지만 잠재적인 교회 참여자로서의 이주민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인과 이주민이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이중 언어학습 환경, 즉 학습자의 모국어 사용이 허용되는 교회에 의한 기독교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며, 조직적인 교수-학습과정을 계획하고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이주민을 위한 비언어적 교수-학습과정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화 간의 복잡한 역동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습자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문해력(文解力) 차이, 국내인의 고맥락 언어 사용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및 오해, 각기 다른 개인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에 따른 제한적 언어구사 능력, 그리고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역기능의 가능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 대비

한 비언어적 교수-학습과정은 학습자의 연령, 인종, 민족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애에 의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교육적 기술이 될 수 있다.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비언어적 교수-학습과정으로서 활동에 의한 경험과 참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율동 및 군무(群舞), 신체의 움직임과 의상연출 및 표정을 이용한 팬터마임(pantomime), 의성어 및 음악을 접목한 모래예술(Sand Art), 단순화한 언어와 인형을 이용한 마리오네트(marionette), 그리고 다국어가 동시에 지원되는 시청각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탈인습적 기독교교육의 교사와 학습자 이해에 있어서 첫째,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와 학습자 간 관계를 분리, 단절,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양자 간의 관계성, 그 자체를 교육내용으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현숙(2007, 207)은 이러한 관계를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적 권위'에 의한 관계로 설명한다. 이러한 탈인습적 관계적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전환을 통해 상호의존 및 상호 간 성장과 성숙, 그리고 창의성 생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 인격체로서의 이해이다. 교육현장은 사회가 요구하는 대량지식과 정보의 효율적 전달과 습득의 공간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공학적 합리성이 기반이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의한 교육과정 속에서는 교사는 단순히 기술적, 계획적, 그리고 의도적 교육행위를 수행하는 소극적 참여자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학습자 역시 일방적, 기계적, 형식적 소재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호 간 즐거움과 행복감을 위한 역량의 필요이다. 월터스토프(2004, 143-144)에 의하면 평화를 이루도록 요청을 받은 인간은 평화를 소개하는 노력과 투쟁에의 참여, 평화를 위한 기도, 평화의 부재에 대한 애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통해 평화를 맛보고, 즐기고, 기뻐하는 일에도 부름을 받는다. 현대사회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부정(不定), 상실, 고통과 슬픔의 환경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만남 속에서 획득하는 즐거움과 행복감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로 하여금 삶의 현실을 긍정하게 하고, 직면한 난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있는 학습자로 하여금 상호 간 간격을 좁히며, 교사에게는 더 창의적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송민영, 2006,

273-278).

탈인습적 기독교교육의 환경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교회가 대안이 되는 환경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필연적 환경으로서 교회의 적절성 때문이다. 왜냐하면 해체되고 있는 가정,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그리고 그 외 회사 및 개인이 접촉할 수 있는 사회적 모임은 현대사회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도가 원활히 제공되기 어렵다. 그리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인 국제전산망에 의한 가상적 공간은 무분별, 무차별적이어서 왜곡된 학습경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 특성상 기능과 역할에 따라 우선, 가정해체 예방과 가정회복을 위해 격려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에 상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간상 양성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교육과정을 계획 및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 및 적절한 환경을 비교적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수준과 규모에 따라 대안적 학교설립을 통해 가정, 학교와의 연계적 교육을 모색할 수도 있다. 나아가 교회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초청하여 모국의 문화를 정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주최하거나, 모국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컨대, 초기 단계에는 기축언어인 영어를 통한 예배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나라로부터 온 이주민이 조직화되는 정도에 따라 이주민 모국어를 통한 예배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교회는 비교적 순발력 있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교육현장으로서 가정과 기독교학교, 그리고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은 조직화 정도, 기능과 역할의 한계, 행정 및 정책상, 재정, 그리고 정책설립에서부터 실행까지의 소요시간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제한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그 수준과 영향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교육적 역량을 습득할 만한 자질 및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단기적인 교육과정을 가정이나 공교육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 및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있어서 교육환경은 스스로를 성찰하며 변화된 삶을 견인해내는 공간으로서 장기간 및 일평생 동안 경험하게 되는 곳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기에 신앙 및 영적성장을 위한 교육환경으로서 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교회의 근간인 성서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상적인 통찰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기독교인은 성서에 나타난 이야기를 내면화함으로써 실천적 삶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탈인습적 기독교교육의 평가는 교수-학습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적으로, 외형적 실천에서,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변용을 나타내고 있는가, 생활 속에서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삶의 변용을 통한 해소를 실제로 경험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상대의 변용을 견인할 수 있는 유출로서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독교교육 특성 상 교육결과의 가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적 다양성 사회에서 요청하는 기독교교육의 평가는 단순한 수량적, 과시적 판단에 의한 목표지향적으로부터 과정적 및 가치지향적 가늠이어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갈등이 자연스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그에 부합하는 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첫째, 갈등에 대한 긍정적 자세가 요청된다. 이는 직면해 있는 갈등이 사회의 발전을 저해시키거나, 개인의 사회적 역량 및 역할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개방적 인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갈등은 경제학자 다니 로드릭(Dani Rodrik)의 지적처럼 사회발전의 필수요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관계성을 해체시키는 요인인 증오, 시기, 욕구, 욕망 등을 관리함으로써 ‘통일’(unity)을 성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Simmel, 2017, 27). 둘째,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중요시여길 필요가 있다.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결과적 효율성만을 중요시하게 되는 경우, 갈등해결 방식 및 그 결과는 일방적, 억압적, 불평등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의 간과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갈등에 직면한 당사자에 의한 공동체적 태도의 요청이다.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자신

의 이익을 정당화하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게 될 때, 상대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결국은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사회 문명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과 차원은 상호의존성으로서 사회적 매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으로서의 기독교교육은 인종, 언어, 민족, 국가 등과 같은 외재적 조건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재적인 조건, 즉 성, 건강, 연령, 사회적 지위 등을 함께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독교인으로서 선행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독교적 실천으로서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타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 평등성을 기반으로 한 타자의 문화와 삶의 배경에 대한 존중,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의존성, 그리고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현재 직면한 갈등을 함께 헤쳐 나가고자 하는 전인적 교육의 성찰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에 상응하는 교육적 실천 속에는 타자에 대한 긍정과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내재적 환경을 지닌 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배려 및 수용은 일차적인 갈등 해소를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구성원과의 공영을 염두에 둔 이유이기도 하다. 공영의 함의는 '함께 번영함'이다. 이러한 공영은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과도 관련한다. 인간사회의 발달에 따른 자연의 파괴 역시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공영은 인간 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 모두가 균형 있는 안녕의 상태라 할 수 있다.

갈등해소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성찰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교육현장과 관련하여 기독교 교육환경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교사로서 본 연구와 관련할 수 있는 당사자가 기독교적 환경이라는 외연으로 제한되어 있음이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평화를 위한 탈인습적 교육모형을 학습한 개인에 의한 외연의 확장은 교육의 성과를 기독교적 환경으로부터 비기독교적 환경으로의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심리학의 개인 역량으로서의 탈인습성과 신학의 살림이 함의한 공동체성 연구에 있어서 제한적 부분이 있다는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문화 간 갈등해소를 위한 단초를 개인적 역량으로서의 탈인습성과 집단적 역량으로서의 살림이 함의하

고 있는 공동체성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오늘날 갈등양상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설명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탈인습성의 한계를 집단적 차원으로서 살롬의 공동체성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탈인습성이 가진 사회성, 살롬이 함의하고 있는 탈인습적 개인 역량, 그리고 살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탈인습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모형이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학습자의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육모형의 학습자는 성년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모형 뿐만 아니라, 그 기반적 기제인 문화적 순환 모델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과 교육환경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현숙 (2004). **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송민영 (2006). **홀리스틱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유네스코 세계보고서: 문화다양성과 문화간 대화**,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Banks, J. A. (2013). **다문화교육: 현안과 전망**. 차윤경, 부향숙, 윤용경 역. 서울: 박학사. (원저 2010 출판)
- Simmel, G. (2017). **집델의 갈등론**. 정현주 역. 서울: 간디서원.
- Habermas, J. (1997).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황태연 역. 서울: 나남출판. (원저 1983 출판)
- 강문규 (2016). 한국 사회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 교육적 모색. 한국 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2, 9-49.
- 김성은 (2005). 세계제국 패권문화와 기독교 평화교육, **신학사상**, 129, 255-282.
- 김현숙 (2007). 공유적 권위와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정보**, 17, 193-214.
- 변영인 (2010). 한국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독교 상담, **복음과 상담**, 15, 181-201.
- 손 문 (2010). 다문화 사회와 기독교 대학의 교양 교육: '탈인습적 신앙 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23, 325-352.
- 신승범 (2014). 다문화사회와 기독교교육: 성서이야기를 통한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가능성 모색, **기독교교육정보**, 43, 185-204.
- 오현선 (2009).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차별화하는 폭력성의 극복을 위한 기독교 평화교육의 한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20, 301-328.
- 옥장흠 (2019).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방향, **신학사상**, 185, 279-313.
- 이은선 (2011). 한국의 다종교, 다문화 상황 속에서 기독교 복음의 의미: 종교편향 논란의 극복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59, 229-264.
- 임성빈 (2013). 다문화사회와 교회의 역할 모색: 인권과 문화통합을 위한 토대제공의 관점에서, **기독교사회윤리**, 27, 305-333.
- 조용훈 (2011).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의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22, 303-330.
- 한준성, 최진우 (2018). 이주민 환대 지수(Hospitality Index) 지표체계 개발 연구, **문화와 정치**, 5(1), 5-41.
- 이운석 (2009). 기독교적 책임을 지향하는 다문화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Cummins, J. (2000). *Language, power and pedagogy: Bilingual children in the crossfir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LTD.
- Fowler, J. W. (1981).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egan, R. (1982). *In over our heads: The mental demands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Kegan, R. (1983). *The evolving self: Problem and process in human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unsey, B. (eds.). (1980). "Stages of moral development as a basis for education." In *Moral Development, Moral Education, and Kohlberg*(15-89). Birmingham,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 Nessan, C. L. (2010). *Shalom church*.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 Page, J. (2008). *Peace education*. Charlotte, NC: Information Age Publishing.
- Pfaffenberger, A. H. & Marko, P. W. (eds.). (2011). "Exceptional maturity of personality: An emerging field." In *The Postconventional Personality*. 1-6.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 Rest, J., Narvaez, D., Beau, M, J., and Thoma, S. J. (2014). *Postconventional moral thinking: A neo-kohlbergian approach*. Mahwah, NJ: Press.
- Wolterstorff, N. (2004). *Educating for shalom*.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Woodley, R. S. (2012). *Shalom and the community of creation: An indigenous vis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Yoder, P. B. (1987). *Shalom: The Bible's word for salvation, justice, and peace*. Nappanee, IN: Evangel Publishing House.
- Kim, H. S. (2006). Educating in a postconventional society. *Religious Education, 101*(3), 453-457.
- Yank, C. W. (1987). PEACE: shalom and ho-ping. *International Journal on World Peace, 4*(4), 81-88.
- Botterweck, G. J. (2006).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XV.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_armTabId=M_01_01 2019.12.11. 인출

Abstract

A Study on Postconventional Christian Education for Intercultural Conflict Resolution

Jinyoung Kim
Pastor, Gangseo Church

Our current society is experiencing a mass upheaval through globalization: mobility, hybridity, and cultural diversity are part of this world phenomenon. We can say that these changes are a result of people crossing borders due to international travel, immigration, emigration, studying abroad, labor, international marriages, fast and comfortable transportation, and the Internet. According to 2018 UNPD(Unti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s data, the international migrants have exceeded 258 million as of 2017. The increased number of migrants signifies that people with various backgrounds move from their own culture to a drastically different one.

Interacting with different cultures can give people the chance to experience abundant lifestyles and improve life qualities. During that process, however, the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can cause not only misunderstandings, conflicts, and violent collisions, but also xenophobia or radical nationalism. The current society is confronted with a problem: the people cannot stubbornly cling to a homogenous ethnicity anymore, which makes the coexistence between the citizens and immigrants necessary. Through these circumstances, I aim to suggest an educational model and a practical curriculum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as the aim of this study. It seeks to encourage Christians to flexibly respond to these conflicts and collisions, and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faithfully. For this reason, I will explore and seek sharing practical values through both shalom's communality as a theological approach and postconventionality in mature adults as a social-scientific approach.

Consequently, I have few requests for the readers. First, approach with openness,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other culture. Second, see this study as one step of confronting the global problem for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of all social agents in the earth, a limited space. Third, notice that this study uses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eological and social scientific view) for a shareable, practical value that consistently leads the curriculum of my thesis, and a scientific method to eliminate bias. Lastly, understand that this study will eventually be used in educational practice, and as a result it prioritizes giving thought to the Christian educational environment.

This study begins by exploring the conflicts and collisions between diverse cultures of our current society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cases. Afterwards, I will reflect on how we can manage these conflicts and collisions by exploring the social-scientific view, postconventionality in mature adults, the theological view, and shalom's communality as a complement for the postconventionality's personal dimension. In conclusion, I suggest a curriculum that achieves peace as a practical value based on postventionality and shalom's communality for this study's goal.

〈 **Keywords** 〉

Globalization, Mobility, Hybridity, Cultural diversity, Conflict, Postconventionality, Shalom

- 투고접수일 : 2020년 05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06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06월 25일